

여수시 공원 39곳에 맨발걷기길...올해 10곳 조성

지난해 미평수원지 뚝방 등 5곳 조성 시민들 큰 호응 세죽장도 설치...황톳길·흙길·모래길 등 종류 다양화

여수시가 올해 도심 속 맨발 걷기 길을 대폭 추가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지난해 도심 속 황톳길 등 맨발 길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시는 황톳길과 흙길, 모래길 등 맨발 길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작은 규모지만 시내 곳곳에 마련함으로써 동네에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맨발 걷기는 숲길이나 산책로를 맨발로 걸으며 땅의 에너지를 직접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어싱'(Earthing)이라고도 하며 '맨발로 땅을 접지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원활한 신진대사와 혈액순환, 불면증 및 통증 완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백사장 경기를 뜻하는 '슈퍼 어싱'이 운동 효과가 더 좋다고 알려지면서 해수욕장 등에는 맨발 걷기를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여수시는 주요 공원 가운데 규모가 크고 이용객이 많은 공원 39곳에 순차적으로 맨발 걷기 길을 설치할 예정이다. 올해는 이순신 공원(0.5km)과 자산공원(0.1km), 종고산 공원(0.5km), 안산공원(0.4km), 무선산 공원(0.5km), 거북선 공원(1.3km), 미평 산림욕장(1km), 봉황산 자연휴양림(2km), 미관광장(0.5km), 어린이공원(미평동 고인돌공원과 여서동 동동재공원) 1km 등 10곳을 새로 단장하거나 신설할 예정이다. 맨발 길 조성은 우선 공원 내 설치된 기존 산책로

를 활용한다. 야자 매트를 걷어내고 노면을 정비해 황토 등을 깔아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한다. 사유지가 포함된 등산로의 경우 소유자의 무상사용 동의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조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주로 사유지가 아닌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 산림공원 등 산림휴양시설에 맨발 길을 도입하게 된다. 맨발 길 끝에는 흙 문은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세죽장과 신발장을 설치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미평수원지 뚝방(0.3km)과 거북선 공원(0.3km), 오림동 터미널 부근 들꽃공원(0.24km), 무선산 공원(0.5km), 덕충동 하늘길공원(0.3km) 등 5개소에 대해 맨발 길을 조성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시민들이 맨발 길을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심 곳곳에 조성하고자 한다"며 "맨발 걷기를 활성화해 시민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정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시가 지난해 조성한 미평수원지 뚝방 황토 맨발 걷기길에서 시민들이 걷고 있다. <여수시 제공>

곡성군 입면 일원에 임대형 첨단농장 8개 동 건립

전남 YOUNG農 공모 30억 확보

청년 채식산업 활성화 동시 추진

곡성군 입면 일원에 임대형 첨단농장 8개 동이 건립된다. 곡성군은 최근 '전남 YOUNG農(영농)스마트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총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곡성군은 입면 일원에 벼로(연동식 대형)·아치형 양액 스마트 온실 6600㎡를 우선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청년 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온실 3300㎡를 추가로 설치한다. 청년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곡성군은 비건(채식)푸드 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이용해 채식 조리법을 만들고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채식 학교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비건 팜파티'를 열어 임대형 스마트팜을 홍보하고 채식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전남 영농 스마트단지 조성사업'은 스마트 농업에 뜻이 있는 청년 농업인에게 실천과 같은 교육 환경과 스마트팜 전문 실습·컨설팅을 제공해 초기 영

농실패를 최소화하고, 청년 인재의 미래 농업 분야의 진출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곡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인 '2024년 청년 농촌보급자리 조성사업' 공모도 도전할 계획이다. 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청년들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해 정주 여건을 마련해 주고, 공동육아 나눔터와 빨래방 등 커뮤니티센터를 구축할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청년 농업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첨단농장을 임대하고,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곡성팜' 등 온라인 입점과 판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곡성=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양시, 소아중증환자 진료 교통비 지원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광양시가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 환자가 큰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광양시에 따르면 어린이 중증 환자의 경우 치료할 수 있는 지역 의료시설이 부족해 다른 지역 병원을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다. 시는 '어린이 중증 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 사업을 준비 중이며 시행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 청

취에 나섰다. 의견제출은 오는 3월7일까지 광양시청 홈페이지 시민참여-신규 정책 사전 공개 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시민 의견수렴 후 사전절차인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조례를 마련한 뒤 내년부터 어린이 중증 환자가 광양지역 외 진료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 중증 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은 광양시에 살면서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등 산정특례 적용 질환을 앓고 있는 12세 이하 어린이(초등학생

이하)가 타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1회당 7만~10만원(수도권 10만원),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교통비 지원은 타지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6개월 이내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해 광양시 건강증진과에 교통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역 내 소아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부족해 다른 지역에서 진료받아야 하는 현실에 교통비 지원을 준비했다"며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시티투어 '구석구석 순천여행' 코스 운행

20일부터 계절별·축제별 테마 연계

순천시가 오는 20일부터 순천의 구석구석을 여행하는 기획투어 '구석구석 순천여행' 코스를 운행한다. 이번 기획투어는 계절별·축제별·마을별 테마와 연계해 월별로 변경해 운행한다. 오는 20일부터 3월까지의 '순천의 봄'을 주제로

로 운행된다. 주요 코스는 봄을 알리는 매화꽃과 벚꽃을 볼 수 있는 '힐링 순천', 순천의 대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미식 순천', 순천만의 흑두루미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생태 순천', 농촌·목공 등 다양한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순천' 등이다. 테마투어는 '생태 투어', '성곽 투어', '세계유산 투어', '산사 투어' 4개 코스로 운행된다. 순천

의 지역 자원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가 탑승해 재미와 풍성함을 더해줄 예정이다. 순천 시티투어 이용 요금, 코스 등 상세 내용 확인과 온라인 예약은 순천시 바로예약에서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의 주요 관광자원만 아니라 체험, 축제, 마을 등 순천 전역 곳곳의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코스를 준비했다"면서 "시티투어만 타면 한 번에 순천을 다양하게 여행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고흥에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마가렛 기념 교육시설 조성

나눔연수원 교육시설로 개편·확대

'소록도 천사' 마가렛 피사레과 마리안느 스토거 간호사의 봉사 정신을 기리는 교육 시설이 고흥에 조성된다. 고흥군은 도양읍에 있는 마리안느와 마가렛 나눔연수원을 자원봉사자 교육 시설로 만들 계획이다. 현재 연수원 건물 바로 옆에 교육관, 숙박시설, 대강당 등을 갖춘 교육시설을 신축할 방침이다. 지하 1층~지상 3층, 건축면적 1270㎡, 연면적 4610㎡ 규모의 건물에는 최대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토의실, 대강당 등이 들어선다. 하루 248명이 숙박할 수 있는 1~12인실도 갖는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절반씩 170억원으로 올해 실시계획비 등 국비 50억원이 지원됐다. 군은 기본·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1월 공사에 들어가 2026년 9월 완공할 예정이다. 현재 연수원 건물은 마리안느·마가렛 두 간호사의 기념 공간 등으로 활용한다. 군은 시설 완공에 맞춰 국내외 자원봉사자를 초청, 기념행사도 열기로 했다.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 전경.

인근 녹동항 일대에는 봉사자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을 조성할 방침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고 선한 영향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광양매화축제 음식점 판매부스 운영자 모집

3월8일부터 17일까지 운영

광양시가 대한민국 대표 봄 축제인 '광양매화축제'의 음식점 판매부스 운영 참여자를 모집한다. 광양매화축제는 3월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열린다. 광양시는 이 기간 지역의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향토음식점과 일반음식점 18개 판매부스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양시에 주소지를 두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한 업소로,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및 3년 이내 식중독 발생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신청 분야는 광양의 지역성과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광양불고기, 닭숯불구이, 광양재첩, 광양 장어를 주메뉴로 하는 '향토음식 판매업소'와 다양한 음식과 축제에 걸맞은 특색있는 음식을 홍보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음식 판매업소'로 나뉜다. 신청은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양지부나 광양시보건소 식품위생과 음식문화팀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김복자 광양시 식품위생과장은 "대한민국 대표 봄 축제를 즐기기에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의 다양한 먹거리를 알릴 수 있도록 많은 업소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구례군 실내체육관에서 '2·28 기념 전국 중·고등학교 태권도대회'가 열린다.

태권도 꿈나무 1500명 구례서 기량 겨룬다

15~23일 전국 중·고 태권도 대회

구례에서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1500여 명의 태권도 꿈나무들이 실력을 겨룬다. 이 기간 '3회 2·28 민주운동기념 전국 중·고등학교 태권도대회'가 구례군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한국중·고등학교태권도연맹이 대한민국 최초 학생 중심의 2·28 민주운동 이념을 기념하기 위해 올해로 세 번째 주최하고 있다.

대회에는 1500여 명의 태권도 꿈나무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겨루기 대회는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지고 품새 대회는 23일에 펼쳐진다. 15일 개최식에서는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을 만날 수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군이 선수들의 마음 속에 꼭 다시 오고 싶은 도시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보성군 내년까지 모든 주택 '마을방송 가정용 수신기' 설치

보성군은 내년까지 모든 주택에 '마을방송 가정용 수신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마을방송 수신기는 호우와 태풍, 한파 등 재난 사고로부터 지역민의 재산과 인명을 지키기 위해 설치하고 있다. 잘 들리지 않는 마을방송을 집 안에서 듣고, 방송을 다시 들을 수도 있다. 보성군은 가정용 수신기 구축을 통해 태풍, 구

지역, 폭우, 폭설 등 긴급 상황 발생 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해마다 호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방송 가정용 수신기가 한발 앞선 소통, 두 발 빠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강마철 이전에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은백 기자 kyb@